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주일(오순절)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다하나 캠프(Dahana Camp)
 - 주제 : 밥 목자! (요한복음 21장 12절)
 - 일시 및 장소 : 5월 30-31(토,주) / Good Earth Village
4.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17일 : 남도운, Samantha Lee / 18일 : Shari Lee
 - 22일 : 양하나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김유영 / 설교번역: 위충일
- 5월 안내 및 봉사: 코니 목장

*향후 교회 행사 (Upcoming Event)

- 다하나 캠프 : 5월 30-31(토,주) @ Good Earth Village

*성서일과 Lectionary (제 20주)

행 1:6-14, 시 68:1-10, 32-35, 벰전 4:12-14, 5:6-11, 요 17:1-11

교회세운날 2017.6.11

26-20

5월 17일 (부활절 일곱째 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Senior Pastor) : 김경헌 목사 (213-357-7614)

예배순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요 14:1-2a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 기도 — 박성조
-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
-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 성경봉독 — 야고보서 3장 1-12절 — 인도자
- 설교 — double-minded, double-tonged — 김경헌 목사
-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 봉헌기도 — 인도자
- 교회소식 — 인도자
-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천국의 열쇠

A. J. Cronin의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을 참 좋아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영화로도 제작된 것으로 압니다. 크로닌은 의사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의 꿈인 소설가의 꿈을 포기 않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읽었던 소설인데 그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희미해져버린 그 때 그 감동을 다시 되새기고자 최근에 다시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뇌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15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용이 거의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15년만에 감동과 기억이 다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분명 그때는 인생 소설이라 할 정도의 감동이 있었는데 말이죠. 아마도 소설의 후반부가 제 뇌리 속에 각인됐었나 봅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안정된 교구 신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를 떠난 이후의 이야기들은 당시 저의 상황과 오버랩 됐기 때문이었죠. 중국 선교를 준비하던 저에게 그가 야망이나 자기 위신을 위한 길을 내려 놓고 주님처럼 아래로 아래로 향하는 삶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설은 치점 신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치점은 11살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됩니다. 지지리도 불행한 운명이었죠. 19세기 중반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구교도로서 신교도들의 공격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부축하여 다리를 건너다 급류에 떠내려가 최후를 맞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의 유산을 탐내던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자기 또래의 외할머니 아들과 심한 차별을 겪으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소년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불행한 나날을 보내던 치점을 친척이었던 폴리 아주머니가 거둬주면서 그의 삶에 별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어 왔던 노라와의 만남도 다시 이뤄집니다. 풋풋한 사랑을 키워가던 그는 홀리웰이라는 카톨릭 신부를 양성하는 고등학교로 보내지게 됩니다. 폴리 아주머니의 간절한 소망은 그가 신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삶에 불행은 또 다시 찾아 옵니다. 그가 사랑했던 노라가 이름 모를 남자의 아기를 출산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옆친 데 덩친 격으로 노라와 사생아를 거두겠다고 동네에서 행실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청년이 노라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노라의 양부모인 폴리 아주머니 부부의 재산을 노린 술수였지요. 노라는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합니다. 프랜시스 는 노라의 죽음 앞에서 그가 신부가 되어야 할 운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프랜시스를 그렇게 부르셔야 했나 하는 의문에 저도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의 기구한 운명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함께 흐느꼈습니다. 어린 그가 겪었던 아픔과 시련들은 그를 더욱 인간미가 넘치고 단단한 사제로 키워주는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론 시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순명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요. 주님! 당신의 부르심을 분별할 지혜와 순명할 용기를 주소서!